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남 영 옥**

초 록

본 연구는 이혼가정 자녀들과 양부모가정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혼가정 자녀 206명과 양부모가정 자녀 34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적응은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가정 자녀들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교사지지, 자아존중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양부모가정 자녀들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교사지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이혼가정 자녀, 심리사회적 특성, 학교적응

* 이 논문은 2010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우리사회는 이혼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쪽 부모와 살아가야 하는 이혼가정 자녀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를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상담제도가 실시되면서 일시적으로 이혼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였으나, 2009년 이혼건수는 12만 4천 건으로 2008년 대비 6.4% 증가하였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가 전체 이혼부부의 55.2%로 한해 7만 명에 가까운 아동 및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0) 이혼가정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한 쪽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혼가정 자녀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경험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 인지적 문제, 주의력문제, 사회문제, 비행 등의 부적응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며(Harland, Reijneveld, Brugman, Verloove-Vanhorick & Verhulst, 2002; Schick, 2002),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Amato & Keith, 1991; Sun & Li, 2009), 학교에서의 부적응(Hetherington, 1993; Storksen, Roysamb, Moum & Tambs, 2005)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 반드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 이혼 여부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Hetherington, 1993), 이혼과 같은 위협에 처한 아동들 중 약 ⅓ 정도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irby & Fraser, 2000).

이렇듯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개인이 가진 상황, 욕구, 자원을 염두하지 않은 채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문제를 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편견과 낙인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들이 부적응적일 것이라고 규정하는 시각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들 간 적응상의 비교와 함께 양부모가정 자녀들에 비해 이혼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이혼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적응상의 문제를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한부모가정이 된 사유에 대하여 구별하지 않고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해 한 쪽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를 함께 연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부모의 사별과 이혼은 자녀로부터 다른 감정을 느끼도록 하고 적응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정영숙·신민섭·이승연, 2009), 이혼가정의 자녀는 사별가정 자녀에 비해 부정적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정현·송다영·한정원, 2003). 따라서 한 부모가 된 사유를 구분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통해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방향을 설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망, 가출, 별거를 제외하고 이혼가정 자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환경이며, 개인 및 환경적인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현장으로(Minard, 2002), 학교에서의 성취가 이후의 사회적응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에 갖는 학교의 의미는 매우 크다(류재중, 2007). 그러나 이혼가정 자녀들의 경우에는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물리적·정서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중요한 생활환경인 학교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에게 있어 성공적인 사회적응의 초석이 될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며, 이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기존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다수 있는 편이지만, 이혼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적응을 다룬 최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민강, 2009; 원한새, 2005). 특히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는 대부분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김현경, 2003; 사운재, 2002; 이명순, 2006; 임병숙, 2004),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비교한 연구(김보경, 2001; 박연수, 2003)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심을 두고 이들이 양부모가정 자녀와 학교적응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들에 대하여 개인이나 가족, 또래와 같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이혜승, 2004; 장덕희·장경아, 2009; 정용주, 2007). 그러나 가족, 또래관계와 같은 단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아동기와는 달리 사회적인 관계가 다양해지는 청

소년기에는 다양한 체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이들의 학교적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전략 및 방향설정 역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학교적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들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 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 가정 자녀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환경에 바람직하게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승, 2004). Havighurst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학업성취도가 높고, 또래와 잘 어울리며, 학교활동에서 긍정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Gray, 2001). 학교적응 여부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학교적응은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이 학교생활에

서 부적응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가정 자녀들에 비해 그들의 학교적응에서 행동문제, 불행감, 대인관계문제, 사회적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도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오승환, 2000; 이혜승, 2004; 홍순혜 2004; Hetherington, 1993). 또한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 간의 학교적응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가정 자녀가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강, 2009; 김보경, 2001; 박연수; 2003; 원한새, 2005). 이혼가정의 자녀는 이혼과정에서 겪은 부모의 상실감으로 인하여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임영희, 2002). 그러나 일부 연구들(김민경, 2008; Amato, 1993)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은 차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이혼가정 자녀들이 부모 이혼 후 1-2년이 지나면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되어 이혼 전의 적응수준으로 회복되기 때문으로 보는 연구(Emery, 1999)와 이혼 자체가 자녀의 부적응을 유발하기 보다는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행동, 사회적 지지에 따라 적응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Block & Gjerde, 1991; 장미애, 2004 재인용)가 있다. 이처럼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부적응적이라는 견해와 양부모가정 자녀와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범주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세 가지 수준에서의 적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 Sawyer, 2003), Bogenschneider(1996)는 심리사회적 특성의 범주를 좀 더 세분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에 주안점을 두고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혼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심리사회적 특성 중 보호요인의 탐색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심리사회적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자원 중의 하나는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갖는 자신의 유능감과 가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등을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Coopersmith, 1967).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으로써, 이 시기에 자신에 대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면 불안이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Rosenberg, 1965; 오승환, 2000 재인용). 기존의 비교 연구들에서 이혼 및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은 양부모가정 자녀들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경, 2003; 사운재, 2002; 이삼연, 2002; 홍순혜, 2004; Amato & Keith, 1991; Storksen et al., 2005). 한편 자아존중감은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원한새, 2005; 이정은·이주리, 2008).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경, 2003; 사운재, 2002; 원한새, 2005; 차순호, 2003). 이처럼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혼 및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변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을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가족요인 중 하나로, 이혼 후 자녀는 한 쪽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주소희, 2003). 기존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가 양부모가정 자녀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이순형·이옥경·민미희, 2006), 자신의 부모를 더 권위주의적이고 덜 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혜승, 2004). 한편,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며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긍정적 자아개념은 자녀의 학교적응을 높여주며(장덕희·장경아, 2009), 또한 이혼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습능력과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혜란, 2006).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이

혼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녀들이 이혼 전과 다른없는 학교적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기에 있어 또래관계는 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적 맥락 중의 하나로써(원한새, 2005), 또래친구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할수록 청소년들의 유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oglund & Leadbeater, 2004),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준, 2006).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관계는 이들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졌고(차순호, 2003),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2004). 또한 한부모가정 자녀는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더 적은 또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경, 2003; 오승환, 2000). 이처럼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삶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사의 관심과 지지, 기대 등은 위기와 역경에 처한 청소년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Constantine & Benard, 2001).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들 중 교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규석, 2004).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에서도 교사지지는 이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현경, 2003; 차순호, 2003), 다양한 요인들 중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최은미, 2007). 한편 이혼가정 자녀가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더 낮은 교사지지를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사윤재, 2002). 이처럼 교사지지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학교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조부모, 다른 친척들, 상담기관 직원들이나 교사 등의 가족 이외의 다른 지지적인 성인들은 가족이 적절한 지지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청소년들의 적응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rner & Smith, 1992; Lindsey, Kurtz, Jarvis, Williams & Nackerud, 2000; 이상준, 2006 재인용). 또한 다른 성인들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가 이혼 후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Cowen, Pedro-Carroll & Alpert-Gillis, 1990), 다른 성인 지지자와의 만남을 갖고 있는 이혼가정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2004). 한편, 이상준(2006)의 연구에서는 다른 성인의 지지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만 학교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요인에서는 자아존중감, 가족요인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또래요인에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학교요인에서는 교사지지, 지역사회요인에서는 다른 성인의 지지를 심리사회적 특성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들은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동시에 양부모가정 자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서 각 기관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의 표본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학년 이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와 이혼가정 자녀이라고 볼 수 없는 94부를 제외한 최종 20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양부모가정 자녀들에 대한 표본은 대구·경북지역의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00부를 배부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지와 양부모가정 자녀라고 볼 수 없는 53부를 제외한 347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박현선(1998)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 준수의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총 22문항의 학교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는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과 흥미 등의 7문항이며,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는 성적, 성적의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미, 학업태도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규범 준수는 교사의 지시 준수, 학교규범 준수, 또래간 싸움, 쾰닝, 지각, 정학이나 근신과 같은 징계처벌 경험, 무단결석, 싸움 경험, 수업 무단이탈 경험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2) 심리사회적 특성

(1)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안하고, 이영자(199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0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시형(1997)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태도 도구 중 민주적 양육태도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를 귀여워한다”, “나 혼자도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준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3)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Perkins와 Jones(2004) 연구의 또래집단 특성척도와 Sebanc(1999)가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척도(Assessment of Prosocial Behavior: APB), 그리고 Nelson(1999)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이상준(2006)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잘 협력한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거나 돕는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4) 교사지지

Duban과 Ulman(1989)이 사용한 교사지지 척도와 박지원(1986),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참고로 이명화(1998)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지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9로 나타났다.

(5) 다른 성인의 지지

Perkins와 Jones(2004), Olson(2003)이 사용한 다른 성인의 지지 측정도구와 Hernandez(1993)가 역할모델과 성인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이상준(2006)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과 방법

이혼가정 자녀의 표집은 확률표집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확률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대구·경북지역의 협조 가능한 사회복지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양부모가정 청소년들은 성별과 학교급의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을 비교하기 위해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한 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입력방법은 enter 방식으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표 1〉은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조사대상 청소년의 인구사회적 특성(N=553)

		이혼가정	전 체	양부모가정	전 체
성 별	남학생	95(46.1)	206	187(53.9)	347
	여학생	111(53.9)		160(46.1)	
학교급	초등학교	98(47.6)	206	100(28.8)	347
	중학교	56(27.2)		110(31.7)	
	고등학교	52(25.2)		137(39.5)	

먼저 이혼가정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46.1%(95명), 여학생이 53.9%(111명)로 총 206명이었으며,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이 47.6%(98명), 중학생이 27.2%(56명), 고등학생이 25.2%(52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3.9%(187명), 여학생이 46.1%(160명)로 총 347명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8.8%(100명), 중학생이 31.7%(110명), 고등학생이 39.5%(137명)로 나타났다.

2.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학교적응 비교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들이 인식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학교적응 차이

	이혼가정			양부모가정			t
	N	M	SD	N	M	SD	
자아존중감	205	27.69	4.89	346	29.69	4.87	4.65*
부모의 양육태도	206	14.90	3.65	347	15.58	3.24	4.47*
또래집단의 특성	206	30.48	4.48	347	31.88	3.64	4.00
교사지지	204	13.28	3.26	346	12.62	3.16	-2.32*
다른 성인의 지지	202	28.17	8.23	347	29.67	7.14	2.23
학교적응	206	63.20	10.34	347	66.45	7.84	4.17

*p<.05

먼저, 자아존중감의 분석결과 이혼가정 자녀들이 27.69점으로 양부모가정 자녀들의 29.69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65$,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은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혼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보다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 및 한부모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김현경, 2003; 사윤재, 2002; 이삼연, 2002; 홍순혜, 2004; Storksen et al., 2005)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인적자원 부족과 긍정적 평가 상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원한새, 2005)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이혼가정 자녀들은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혼가정 자녀들이 14.90점으로 양부모가정 자녀들의 15.58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47$, $p<.05$)가 있었다. 즉, 이혼가정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양부모가정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혼가정 자녀가 양부모가정 자녀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이순형·이옥경·민미희, 2006), 자신의 부모를 더 권위주의적이고 덜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이혜승, 2004)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이혼 후 양육부모 중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던 부모의 역할이 한 쪽 부모에게 부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자녀양육 자체가 양육부모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홍순혜, 2004) 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개별적인 자율성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양육을 하는 것까지 신경쓰기가 어려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이혼가정 자녀들이 30.48점으로 양부모가정 자녀들의 31.88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들 간에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 간의 또래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현경, 2003; 오승환, 2000)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사실을 숨기거나 극히 소수의 또래친구에게만 알려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김경집, 2005) 극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친구의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도 이혼 전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의 성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사지지는 이혼가정 자녀들이 13.28점으로 양부모가정 자녀들의 12.6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32$,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 자녀들이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교사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교사지지의 수준이 한부모가정 자녀가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더 낮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김현경, 2003; 사운재, 2002)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지지가 부족한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성인인 교사가 중요한 지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가정 자녀들은 교사에게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자 할 것이며, 교사 또한 양부모가정 자녀보다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이혼가정 자녀가 지각하는 교사지지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성인의 지지는 이혼가정 자녀들이 28.17점으로 양부모가정 자녀들의 29.67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들 간에 다른 성인의 지지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가 지각하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지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민정, 2008)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은 이혼가정 자녀들이 63.20점으로 양부모가정 자녀들의 66.4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들 간에 학교적응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가정 자녀가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행연구들(김민강, 2009; 김보경, 2001; 박연수, 2003; 원한새, 2005)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학습에 대한 가치, 수업 외 활동, 학교의 지지와 같은 학교 보호요인에서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아동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민정, 2008)와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의 적응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Amato, 1993; Block & Gjerde, 1991; 장미애, 2004 재인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표 3〉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학교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투입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급을 연령으로 변경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표 3>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N=553)

예측변인	준거변인	학 교 적 응							
		이혼가정 자녀(N=206)				양부모가정 자녀(N=347)			
		B	SE	β	t	B	SE	β	t
통제변수	(상수)	22.776	4.874		4.673***	31.739	5.046		6.289***
	성별	3.002	1.015	.148	2.958**	-.384	.843	-.025	-.455
	연령	-.773	.212	-.186	-3.653***	-.437	.217	-.111	-2.016*
	경제수준	.003	.005	.031	.644	.000	.001	.015	.285
심리사회적	자아존중감	.476	.119	.229	3.983***	.183	.101	.116	1.805
	부모의 양육태도	.508	.172	.181	2.948**	.346	.137	.150	2.515*
	또래집단특성	.671	.138	.296	4.879***	.675	.124	.339	5.462***
특성	교사지지	.806	.180	.259	4.479***	.729	.142	.303	5.153***
	다른 성인 지지	-.089	.076	-.072	-1.167	-.009	.064	-.009	-.140
F		37.378**				20.648***			
R ² (adj. R ²)		.611(.595)				.421(.401)			

*p<.05, **p<.01, ***p<.001 성별(남=0, 여=1), 학교급(연령)

먼저, 이혼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교사지지가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 자녀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또래집단이 친사회적일수록, 교사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beta=.296$)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사지지($\beta=.259$)와 자아존중감($\beta=.229$),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beta=.1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여학생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심리사회적 특성요인을 설정한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모형의 설

명력은 59.5%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성인의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교사지지가 학교적응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부모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또래집단이 친사회적일수록, 교사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beta=.339$)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사지지($\beta=.303$),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beta=.150$) 순으로 학교적응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심리사회적 특성요인을 설정한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모형의 설명력은 4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다른 성인의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이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적응에 대한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 자녀들과 양부모가정 자녀들 모두에게 있어서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을 때 학교적응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양부모가정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교사지지가 이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양부모가정 청소년들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또래집단이 친사회적일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이들의 학교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배정미, 2008; 사운재, 2002; 이상준, 2006; 정규석, 2004)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 대상인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이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현경, 2003; 사운재, 2002; 원한새, 2005; 차순호, 2003)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유능감과 가치에 대한 느낌이 확고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불안한 상황 속

에서도 자신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교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지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학교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의 수용적, 민주적, 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김혜란, 2006; 장덕희·장경아, 2009)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황이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양육부모가 일관적이면서도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긍정적 태도로 양육에 임한다면 이혼 전과 같은 적응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소임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중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관계가 이들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된 연구(차순호, 2003)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가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교사지지가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현경, 2003; 차순호, 2003; 최은미, 2007)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 것은 이혼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겪은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나 교사와 같은 심리사회적 지지원들을 통하여 학교적응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즉,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돕고자 하는 성향을 지닌 친구들과 또래관계를 맺고, 학교 내에서 중요한 성인인 교사의 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가 일상생활 속에서 양부모가정 자녀와 다름없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혼가정 자녀들과 양부모가정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가정 자녀 206명과 양부모가정 자녀 34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사회적 특성요인 중 이혼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양부모가정 자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지지는 이혼가정 자녀들이 양부모가정 자녀들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 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다른 성인의 지지는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 자녀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에서도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혼가정 자녀들은 또래집단이 친사회적일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정 자녀들은 또래집단이 친사회적일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 자녀들의 학교적응 수준이 양부모가정 자녀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대다수의 기존연구들이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부적응적이라는 결과를 통해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이며, 이혼가정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희석시킬 수 있는 자료로써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본다. 최근 학교 내에서 전문상담교사제도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혼가정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착으로 인하여 정책적 지원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이혼가정 자녀들의 적응환경이 개선되어 이들의 학교적응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적응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혼이라는 상황 자체가 자녀의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이혼 이후에 부모의 역할, 행동, 사회적 지지에 의해 달라진다고 보고된 연구(Block & Gjerde, 1991; 장미애, 2004 재인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양육부모가 이혼 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양육을 하거나 사회적 체계에서 변함없는 지지를 제공해준다면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양부모가정이었을 때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양부모가정 자녀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가 특히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 전의 부모 갈등상황과 이혼 후의 위기 상황, 한 부모의 상실을 모두 경험한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 상실로 인하여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들(이삼연, 2002; 정용주, 2007)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영역에 대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줄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혼가정의 주양육자는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혼가정 자녀들이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가정의 양육부모는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김은정·백혜정, 2007)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복지관에서는 이혼가정의 양육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양육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가사도우미의 파견, 밑반찬지원, 자녀의 학습지원과 같은 양육지원을 보강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 양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부족한 성인의 지지를 학교에서 의미 있는 성인인 교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이혼가정 청소년들은 교사가 부모

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며, 교사의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혼가정 청소년들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청소년들을 동기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정은, 2005).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지속적으로 이혼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또래의 친사회적 특성은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 모두에게 있어 이들과 가정 자녀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이들과 가정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부모가정의 자녀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사회적 특성을 가진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들과 가정 자녀와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가정또래관계의 친사회적 특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급응집력 강화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모가정의 자녀와 .

한편, 다른 성인의 지지는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 모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다른 성인의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기존의 연구(이상준, 2006)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성인의 지지가 청소년의 다양한 환경 중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가 아닌 다른 사회적 환경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장면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리사회적 특성 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역동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고,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을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은 환경적으로 분명히 다르며, 가정 내 어려움과 부모-자녀관계의 특성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권정은(2005). 이혼 가정 청소년들의 부모 이혼 후 초기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사회 복지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집(2005).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강(2009).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인 탐색.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08). 일반가정아동과 이혼가정아동의 보호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비교.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경(2004).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간의 경로 분석. 서울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백혜정(2007). 이혼으로 인한 ‘가족상실’, ‘경제소득’ 및 ‘양육행동’의 변화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9집 제3호, pp. 79-103.
- 김현경(2003). 결손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란(2006). 이혼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재중(2007). 조손가정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연수(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정미(2008). 중학생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한국간호과학회, 제38권 제3호, pp. 454-464.
- 사운재(2002). 가족갈등으로 인한 결손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정현 · 송다영 · 한정원(2003). 이혼가족 및 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 가족복지학, 제11권, pp. 9-34.
- 오승환(2000).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한새(2005). 이혼가정의 양육 부모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 적응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 이주리(2008). 한부모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 연구, 제15권 제2호, pp. 1-16.
- 이명순(2006).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비교연구. 전북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pp. 37-65.
- 이상준(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순형 · 이옥경 · 민미희(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차이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pp. 181-192.
- 이혜승(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한국가족복지학, 제11권 제1호, pp. 421-441.
- 임병숙(2004). 결손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학교사회환경적 보호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희(2002). 아동의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통한 결손가정 아동의 정의적 성적 및 학업성취도의 변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덕희 · 장경아(2009). 이혼가족자녀의 학교적응에 가족보호요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복지학회, 제14권 제4호, pp. 5-24.
- 장미애(2004).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한 양육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권 제10호, pp. 235-252.
- 정영숙 · 신민섭 · 이승연 (2009). 청소년 심리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정용주(2007). 일반가정아동과 이혼가정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생활적응에 관한

-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소희(2003).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차순호(2003). 한부모가정 아동 및 부모부재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미(2007).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및 그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0). www.nso.go.kr. 한국의 사회지표.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복지학*, 제17권, pp. 151-177.
- Amato, P. 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5, pp. 23-38.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0, pp. 26-46.
- Bogenschneider, K.(1996). *Family related prevention programs in Family relations*, edited by J. E. Steven Son, NY: Rergamon, pp. 127-138.
- Constantine, N., & Bernard, B.(2001). California healthy kids survey resilience assessment module technical re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28 No. 2, pp. 122-140.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W.H. Freeman.
- Cowen, E. L., Pedro-Carroll, J. L., & Alpert-Gillis, L. J.(1990).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and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1, pp. 727-735.
- Emery R. E.(1999). Postdovoice family life for children. In R. Tompson, R. Amato(Ed.). *The postdovoice family: children, parenting and society*. Thousand Oaks: Sage.
- Gray, J. P.(2001). *The relations of teacher education, student' resiliency, work motivation, and school-level 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 Harland, P., Reijneveld, S. A., Brugman, E., Verloove-Vanhorick, S. P., & Verhulst, F. C.(2002). Family factors and life event as risk factors for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 in children.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11*, pp. 176-184.
- He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7*, pp. 39-56.
- Hoglund, B. J., & B. J. Leadbeater.(2004).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classroom ecologies on changes in adolescents'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first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0 No. 4*, pp. 533-544.
- Kirby, L. D., & Fraser, M. W.(2000).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p. 10-33.
- Minard, C. V.(2002). A strong building foundation of protective factor in school. *Adolescents & Schools, Vol. 24 No. 4*, pp. 233-246.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6*, pp. 1-11.
- Schick, A.(2002). Behavioral and emotional differences between adolescents of divorce and adolescents from intact families: Clinical significance and mediating processe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Vol. 61 No. 1*, pp. 5-14.
- Storksen, I., Roysamb, E., Moum, T. & Tambs, K.(2005). Adolescents with a childhood experience of parental divorce: a longitudinal study of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ce, Vol. 30*, pp. 725-739.
- Sun, Y., & Li, Y.(2009). Parental divorce, sibsize, family resources, and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8 No.3*, pp. 622-63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Nam, Young-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y possible gaps in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school adjustment levels between adolescents from diverse families and other adolescents from intact families and the impact of their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n their levels of school adjustment. Ou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on the whole in school adjustment levels between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and those from intact families. Second,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adjusted themselves better to school when they took a more positive view of the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teacher support, their own self-esteem,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and those from intact families were better at school adjustment when they looked at teacher support, the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peer group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in more positive manner.

Key Words :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school adjustment

투고일 : 6월 14일, 심사일 : 7월 20일, 심사완료일 : 8월 11일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